석유화학, 2005년 수출 15% 증가

무역진흥공사, 철강·반도체·자동차도 호조 ... 섬유·컴퓨터 부진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 30대 수입 대상국의 바이어 및 주재상사를 대상으로 한국제품 수입수요를 조사·분석한 결과, 2005년 4/4분기에 30대 수출국의 수입수요는 전년동기대비 12-13% 증가한 670억6000만-676억58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.

또 전망치와 2005년 수출입실적을 분석 추정한 결과, 2005년 4/4분기에 전체 한국제품 수입수요는 전년동기 대비 12-13% 증가한 772억900만-780억2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.

따라서 30대 수입 대상국의 2005년 한국제품 수입수요는 전년대비 11.5-12.3% 증가한 2830억3700만-2850억 67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.

한국산 수입수요가 15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독일, 러시아, 멕시코, 베트남, 브라질, 사우디, 싱가포르, 이태리, 인디아, 인도네시아, 중국, 캐나다, 파나마 순으로 나타났고, 10-15% 증가는 네덜란드, 벨기에, 스페인, 일본, 터키, 오스트레일리아, 5-10% 증가는 타이완, UAE, 이란, 타이, 프랑스, 홍콩, 3-5% 이상은 말레이시아, 필리핀, 3% 이하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는 그리스, 미국, 영국으로 나타났다.

품목별로는 일반기계(기초산업·산업), 철강, 석유화학, 반도체, 자동차부품이 15% 이상 증가하고, 무선통신 기기, 자동차는 10-15% 이상, 섬유류, 컴퓨터, 가전제품은 3% 이하 또는 감소할 예상됐다.

<화학저널 2005/10/14>